

창원의회 소식

vol.13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창원시 의회



창원시 의회
council.changwon.go.kr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 창원시 의회





2014. 10.

Contents

02 인 사 말

04 의원소개

08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39회 임시회 (2014. 7. 01. ~ 7. 03.)
- 제40회 임시회 (2014. 7. 21. ~ 7. 25.)
- 제41회 임시회 (2014. 8. 27. ~ 8. 29.)

14 시정에관한질문

16 5분 자유발언

- 제40회 임시회 (김삼모 의원 등 3명)
- 제41회 임시회 (전수명 의원)

17 위원회 활동

2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6 언론 보도자료

37 의원 칼럼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창원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희망과 큰 꿈을 안고 제2대 창원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제1대 창원시의회는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세계명품도시로서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시민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 각종 제도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2대 창원시의회는 여러분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선진의회 모습으로 통합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의 기반 위에 민생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친 서민 복지정책 강화와 창조적 문화 산업 육성, 자연친화 도시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창출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과 조정,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늘 처음처럼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어려움속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단결하여 큰 창원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108만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새누리당 / 거선지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부의장

김하용

무소속 / 더선지구
(웅천, 웅동1, 2동)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철

새누리당 / 자선지구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기획행정위원장

정쌍학

새누리당 / 아선지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이상인

새누리당 / 파선지구
(양덕1, 2, 함성2, 구암1, 2, 봉암동)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

전수명

새누리당 / 하선지구
(중앙, 태평, 충무, 여좌동)



도시건설위원장

김동수

새누리당 / 가선지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의회운영 위원회



김 재 철
새누리당 / 자선거구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박 춘 덕
새누리당 / 녀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강 호 상
새누리당 / 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석 규
통합진보당 / 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배 여 진
새누리당 / 비례대표



조 영 명
새누리당 / 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강 영 희
통합진보당 / 나선거구
(팔용, 명곡동)



노 창 섭
무소속 / 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기획행정 위원회



정 쌍 학
새누리당 / 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만월, 중앙동)



강 호 상
새누리당 / 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강 장 순
새누리당 / 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김 석 규
통합진보당 / 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김 성 일
새누리당 / 녀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김 영 미
새누리당 / 비례대표



김 현 일
새누리당 / 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공 창 섭
새정치민주연합/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노 종 래
새누리당 / 카선거구
(내서읍)



황 일 두
새누리당 / 차선거구
(교방, 노산, 함포, 산호동)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회



이 상 인
새누리당 / 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배 여 진
새누리당 / 비례대표



김 삼 모
새정치민주연합/마선거구
(상남,사파동)



김 재 철
새누리당 / 자선거구
(완월,자산,동서,성호,오동동)



김 종 대
새정치민주연합/타선거구
(회원1,2동,석천1,2동,회성,합성동)



김 하 웅
무소속 / 더선거구
(웅천,웅동1,2동)



배 옥 속
새누리당 / 비례대표



이 희 철
새누리당 / 다선거구
(봉림,용지동)



정 영 주
통합진보당 / 라선거구
(반송,중앙,웅남동)



주 철 우
새정치민주연합/나선거구
(팔룡,명곡동)



한 은 정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환경해양농림축산 위원회



전 수 명
새누리당 / 하선거구
(중읍,태평,충무,의좌동)



조 영 명
새누리당 / 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강 영 희
통합진보당 / 나선거구
(팔룡,명곡동)



김 순 식
새누리당 / 차선거구
(교방,노산,합포,산호동)



김 우 돌
새누리당 / 가선거구
(동읍,북면,대산면,의장동)



김 이 근
새누리당 / 사선거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



김 장 하
새정치민주연합/가선거구
(동읍,북면,대산면,의장동)



이 민 희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이 천 수
새누리당 / 사선거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이 치 우
새누리당 / 더선거구
(웅천,웅동1,2동)

도시건설 위원회



김 동 수
새누리당 / 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노 창 섭
무소속 / 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노 판 식
새누리당 / 타선거구
(회원1,2동, 석전,2동, 회성, 합성동)



박 옥 순
새누리당 / 자선거구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박 춘 덕
새누리당 / 녀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방 종 근
새누리당 / 나선거구
(팔용, 명곡동)



손 태 화
새정치민주연합/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송 순 호
통합진보당/카선거구
(내서읍)



이 옥 선
무소속 / 아선거구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이 찬 호
새누리당 / 라선거구
(반송, 중앙, 용남동)



이 해 련
새누리당 / 하선거구
(중앙, 태평, 충무, 여좌동)





❖ 의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 다선, 연장의원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명을 선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3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4. 7. 1.)에서 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데 있음
- 선거결과 : 유원석 의원 당선

❖ 부의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 의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3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4. 7. 1.)에서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데 있음
- 선거결과 : 김하용 의원 당선



제3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4. 7. 1. ~ 7. 3.) ... 3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 제 의 자 : 의장

• 제안이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3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4. 7. 1.)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선거결과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재철 의원
-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정쌍학 의원
-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 : 이상인 의원
- －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 : 전수명 의원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김동수 의원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의 자 : 의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원회명	위원정수	위원장	추 천 위 원	비고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0명 이내	정쌍학	공창섭, 강호상, 강장순, 김석규, 황일두, 노종래, 김현일, 김성일, 김영미 의원	
경제복지문화 여성위원회	11명 이내	이상인	한은정, 이희철, 정영주, 김삼모, 김재철, 김하용, 주철우, 배여진, 배옥숙, 김중대 의원	
환경해양농림 축산위원회	10명 이내	전수명	김우돌, 강영희, 이치우, 이천수, 김이근, 이민희, 조영명, 김순식, 김장하 의원	
도 시 건 설 위 원 회	11명 이내	김동수	방종근, 이찬호, 노창섭, 박옥순, 이옥선, 송순호, 노판식, 손태화, 박춘덕, 이해련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는 정회중 각 위원회로부터 2명씩을 추천받아 선임

위원회명	위원정수	위원장	추 천 위 원	비고
의 회 운영위원회	8명 이내	김재철	강호상, 김석규, 배여진, 조영명, 강영희, 노창섭, 박춘덕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4. 7. 21. ~ 7. 25.) ... 5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도서관법」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현행 조례상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도서관법」과 같은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민 또는 기업·기업인이 규제를 신고하였을 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성된 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도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무원 직종개편(2013. 12. 12. 시행)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등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원에 설립한 (재)마산밸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유보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2010년 5월 6일부로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재)마산밸리가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전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진해예술촌은 폐교된 진해동중학교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3학년도 웅천고등학교 학급 증설계획에 따라 진해문화센터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 5월에 이전하게 되어 예술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

❖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 개정 대안에 의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명칭을 「아동·여성인권연대」로 변경하여 인권연대 프로그램의 효과 적인 수행과 인권연대의 운영처리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현실적 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융자금의 이자부담금을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반대의견 채택
- 제안이유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에 위치한 국군수송사령부 컨테이너항만중대는 탄약 등 물자보급을 위한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축조되어 있으나, 대형선 접안시 안전한 입항을 유도하기 위한 소형 예인선 및 국군수송사령부의 군사 작전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상륙함 등 소형선박(12~500ton)은 탄약부두에 접안 및 계류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부산광역시와 국방시설본부간 체결한 ‘수영부두 기부 對 양여사업’의 일환인 소선박부두를 계획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창원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09. 3월 산업부에서 확정·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 구는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되었으나, 매립 면허 취득기한(5년) 경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매립기본계획에 재반영 되어야 함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 경제자유 구역 활성화와 연구개발 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하여 새로이 매립기본계획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 취코자 함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
규제 개혁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종전의 마산지역 중에서 회성동, 석전동, 초계동, 구암동, 자산동, 교방동, 회원2동 및 봉암동 각 일부지역과 창원지역 중 서상동, 동정동, 소계동 일원에 대한 도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각각의 종전 지역에만 한정하여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보조례로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환지처분 등) 완료로 목적사업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어 존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고, 지역상황 변화에 따라 주차 요금의 급지 구분에서 읍·면 지역 중 일부를 2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하며, 주로 도심지역인 1급지의 주차요금을 타시도 수준으로 인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 현 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새 야구장 부지 변경과 육대부지 산학연 첨단 기술단지 조성

제41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8. 29.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해구 간부공무원 간담회 시 새야구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8월 12일 14시,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해구 간부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우리 시는 입지변경을 해야 할지, 건립포기로 연고지 이전을 하게 해야 할지 선택의 상황임을 설명하고 아울러 사실상 구육군대학부지에 새야구장을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산학연 첨단기술단지 조성계획 및 어떤과정을 거쳐 착수했고 준비기간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단지는 창원시에서 2011년도 12월달에 수립한 창원 전략산업육성계획과 경남도에서는 도민 4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미래 50년 먹거리사업으로 미래 성장 5+1 핵심사업으로 지금 들어있고, 국가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등 국가전략 로드맵에 따라서 지역주력산업 육성 지원과 첨단기계 소재부품 분야의 연구개발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정밀기계, 운송기계, 부품소재산업첨단화를 위해서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진해야구장의 이전문제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해주민들한테, 또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내가 진해 새야구장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공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취임한 이후에 NC 측에서 8월말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연고지를 이전하겠다고 최종 통보하여 저하고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문서로써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검토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7월 1일 취임 이후에 7월 8일과 7월 15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존에 있던 균형발전위원회, 말하자면 시민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도 여론수렴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을 결정하여 추진중인 새 야구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김 성 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종합경기장을 허물고 야구장을 건립한다면 야구팬들보다 훨씬 많은 축구인, 생활 체육인 등 시민들과 많은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 이전 등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입지변경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꼭 그렇게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새로 야구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주경기장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 사무실을 현 마산야구장의 사무공간으로 옮겨 활용토록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막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 확정적으로 무슨 정책 자체가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NC가 요구하는 마산운동장으로 결정하면 의회 승인사항, 예산심의 등 지역갈등이 심할 것인데 특별한 봉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입지변경이 결정된다면 새야구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입찰 안내서 작성,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업들은 시의회의 승인 하에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다면 시의회의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육대부지 일부 2만8천평만 야구장 부지인데 나머지 5만7천평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땅 중에서 2만8천평이 야구장 부지이고 나머지 5만7천평이 있는데 5만7천평이 부지에 대해서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입지타당성 조사에 창원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마산종합운동장, 진해육대부지 종합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대중교통 등 접근성 양호, 행정절차 간소화, 도심지 스포츠시설타운화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종합경기장 국제공인 자격 상실, 경기장 집중으로 스포츠시설 포화 상태, 교통체증 유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산종합운동장의 경우는 마산권 경제활성화, 대중교통 등 접근성 양호,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교통체증 유발, 대체시설 요구, 야구장 중복배치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 육군대학의 경우도 해안조망 랜드마크, 주차장확보 용이, 균형발전 도모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GB해제, 기부양여 절차 장기간 소요, 도로망 협소로 접근성 미흡, 주거지역 민원 우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0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14. 7. 21(수) 】



김 삼 모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청소년 건전 육성 전담부서 신설해야 (2014. 7. 21.)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가정 및 사회 환경에 의한 피해자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한다. 현재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의 청소년담당부서에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청소년시설운영, 관련행사와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장기적 대책으로 좋은 가정 만들기 및 시민의식 강화정책 사업을 펼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신혼부부, 학부모, 직장인 등에게 '소양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올바른 부모의 역할, 자녀지도 교육방법 및 부부간의 원활한 대화기법 등을 교육한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가정에서부터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손 태 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인구 과소 읍면동 통폐합 추진 촉구 (2014. 7. 21.)

옛 마산시는 지난 1995년 도농통합에 의해 41개 읍면동으로 통합된 이후 또다시 3년 동안 통폐합을 실시, 1998년 32개 읍면동으로 9개 동을 축소했다. 옛 창원시도 같은 해 도농통합으로 27개 읍면동이었으나 대동제를 실시해 15개로 통폐합했다. 통합 창원시는 현재 62개 읍면동의 인구 편차가 2014년 6월말 현재 성산구 사파동의 인구는 5만5,695명이며, 마산합포구 가포동의 인구는 1,508명으로 무려 36배 이상의 편차가 나고 있다. 통합 창원시 1기 때인 2년 전 인구과소 읍면동 통폐합 추진을 위해 주민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상황에서 추진이 중단된 만큼 이제라도 통폐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인구과소 읍면동을 조속한 시일 내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공공도서관 책 소독기 보급 늘려야 (2014. 7. 21.)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서관에 '책 소독기'보급을 늘려야 한다. 현재 시 도서관에 총 120만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지만 책 소독기는 단 1대뿐이다. 공공도서관 도서는 장기간 보관되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책 소독기 확대 설치의 꼭 필요하다. 현재 창원시에는 의창·고향의 봄·명곡·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내서·중리 초등종합시설·진해·동부 도서관 등 총 11개의 시 산하 도서관이 있다. 하지만 이 중 책 소독기가 있는 곳은 가장 최근에 개관한 명곡도서관 한 곳뿐이다. 책 소독기는 면역력이 약한 유아·청소년을 비롯해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책 소독기를 늘려야 한다.



손 태 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도심 한복판 우수관로 정비 등 국지성 집중호우 대책을 촉구하며 (2014. 7. 25.)

요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심의 곳곳이 침수되고 있다. 그러나 6~7년전 설치된 우수관로 악취방지시설의 재질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 부식되고 썩어서 대부분 제 기능을 잃고 있다. 또한 담배꽂초, 쓰레기, 가로수 낙엽 등이 쌓여 우수관로의 빗물받이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향후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풍수 피해를 당하기 전에 우수관로 준설과 우수관로 빗물받이 악취방지장치 철거 대책 등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제해결을 조속히 해주실 것을 촉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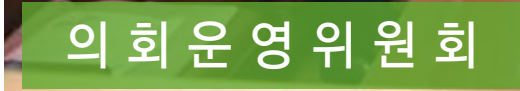
제41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14. 8. 27(수) 】



전 수 명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행정행위의 계속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라! (2014. 8. 27.)

19만 진해구민들의 염원이었던 진해야구장 건설의 뜻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새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며,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에 전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간 추진해 온 행정행위에 대하여 계속성을 유지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개최
하기로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기간 중

- ▷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 ▷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원안가결
- ▷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가결
- ▷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원안가결
-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가결
-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 ▷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원안가결
- ▷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가결
- ▷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가결
- ▷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가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전수명)는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 ▷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반대의견 채택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가결

도시건설위원회는 2014년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2014. 8. 25.~ 8. 26.(1박2일)로 서울 성북구외2개소 도시재생사업지 전주 한옥마을을 시찰 했다.



제4회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7월 1일 제4회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제2대 의장단 기자회견

7월 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의회 (의장 유원석)의장단은 제2대 의회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사무실 방문

7월 4일 의회 의장단은 창원시 공무원노조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제3회 창원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참석

7월 7일 제3회 창원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제19회 여성주간 기념식 특강

7월 9일 제19회 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특강을 하였다.



창원시 국공립 법인보육 교직원 직무 연수

7월 10일 창원시국공립·법인보육교직원 직무연수 교직원에게 특강을 하였다.



중양초등학교 일일교사 수업

7월 11일 모교인 중양초등학교 4학년 일일교사 수업을 하였다.

제2대 의정연찬회 개최

7월 16일 ~ 7월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 대명콘도에서 의정 연찬회를 가졌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및 전시회

7월 25일 (사)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 지부 주관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및 전시회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공직선거법 의정연찬회

7월 25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마친 후 전의원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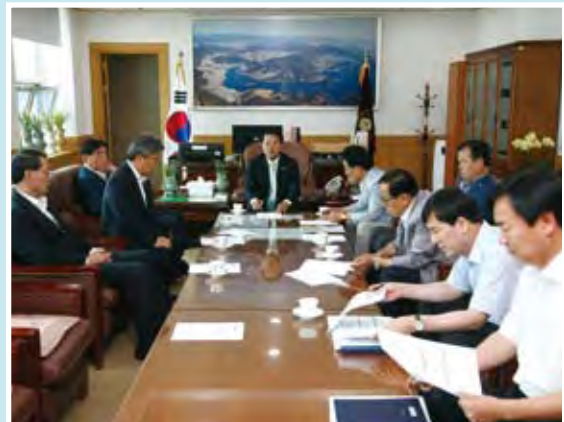
도·시의원 초청 간담회

8월 13일 진해구 중회의실에서 도·시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2014년 을지연습장 방문

창원시 의회(의장 유원석)의장단은 8월 19일 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의장단 간담회 개최

8월 22일 의장단 간담회시 제172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준비 및 상임위원별 활동 상황을 점검하였다.



진해구 용원주민운동장 착공

8월 14일 진해구 청안동에서 용원주민운동장 조성 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로컬푸드연구회 첫등록

‘로컬푸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첫 모임 시 노창섭 의원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9월 1일 제172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7대 전반기 회장으로
창원시의회 유원석 의장이 선출되었다.

좋은조례 연구회 출범

‘좋은 조례 연구회’가 8월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모임 시 노판식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었다.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2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 유원석, 부의장 김하용 의원 당선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개원에 앞서 7월 1일 제2대 창원시의회 전반기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3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43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유원석 의원이 24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 결과 김하용 의원이 43표 중 22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유원석 신임의장과

향후 2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유원석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항상 대화와 소통 속에서 창원시의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선배·동료 한분 한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였다.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충혼탑 참배

108만 시민의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2대 창원시의회(유원석 의장) 전반기 의장단이 개원식에 앞서 2일 오전 충혼탑을 참배

하여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한 다짐을 했다.

제2대 창원시의회 개원



제2대 창원시의회가 7월 2일 14시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유원석 제2대 창원시의회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2대 창원시의회는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첫째, 각종 연찬회와 간담회, 비교 견학 등을 통한 의원역량 강화, 둘째, 창원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소지역주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항상 시민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정책의회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 셋째, 시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 실현”이라는 세가지 의정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창원시의회는 집행부와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공동운명체로서 견제와 보완의 적절한 균형 속에 새로이 출범하는 제2기 창원시의 시정목표인 ‘도약하는 새시대 큰 창원’ 건설에 함께 할 것과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지역 간 이해관계와 당리당락을 떠나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제2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정을 설계하는 의정연찬회 실시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에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의 목적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고, 시정이 시민들의 뜻에 따라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전문지식 배양과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 등 선진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기법 습득에 있다.

이번 연찬회는 국회 수석전문 위원으로 지냈던 최민수 박사를 초빙해 ‘의사진행 기법과 본회의 질의 및 발언요령, 의정 활동 및 자료 요구 방법’ 등 의정 실무특강과 윤복만 교수의 ‘웃음이 건강과 힐링을 만든다’ 주제로 힐링 강좌가 있었고, 정창수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핵심 착안사항과 실전사례’ 의정실무특강 등이 있었다.

또한 위원회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4년 창원시 재정상황을 고려한 예산심사 방법

등 전문지식과 의정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탐방 행사 일환으로 장사도 해상공원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시 발전 방안을 연구했다.

창원시의회 유원석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제2대 창원시의회 의정목표인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의 위상에 초점을 두고 직무연찬, 위원회별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의 명제인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 고 밝혔다.



제2대 창원시의회 의원선거, 제40회 임시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오는 7월 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4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업무보고 건과 16건의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일 오후 2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22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 심사, 현장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유원석 의장은 제2대 시의회의 실질적인 첫 임시회의 개회사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임시회가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과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향후 민생 정치를 펼쳐가는 밑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의회 제41회 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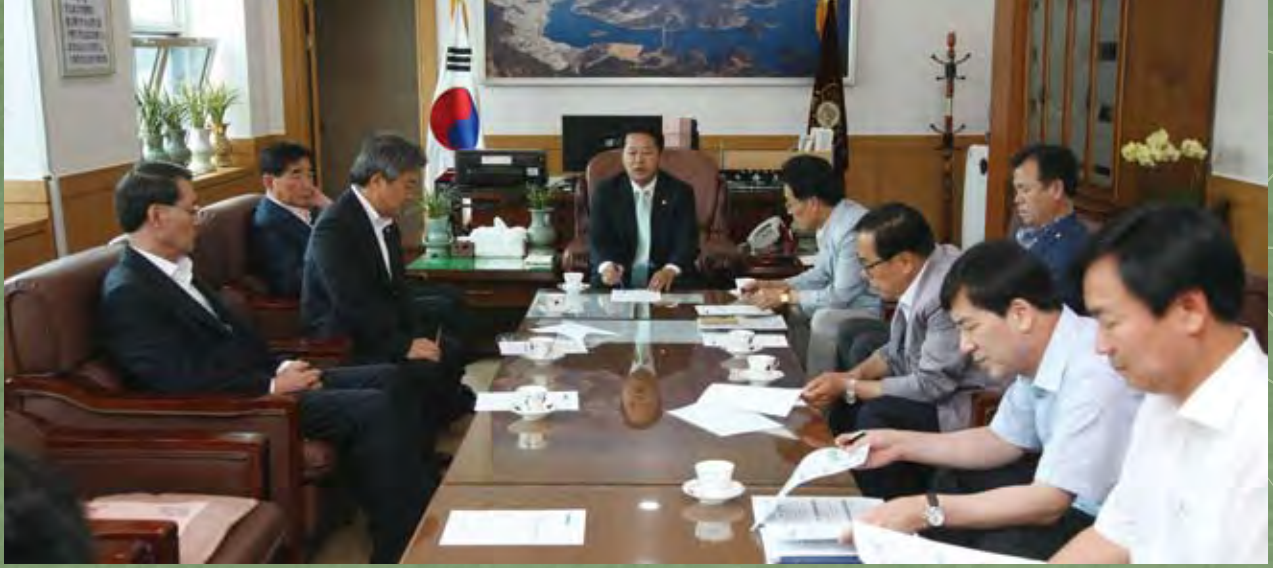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8월 2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4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41회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8월27일 1차 본회의의 전수명 의원 5분 자유발언(행정행위의 계속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라) 8월 28일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8월 29일 2차 본회의, 폐회 순으로 진행한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월요일,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로 인명 사고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특히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 무사귀환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면서 희생자가 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실종자 수색작업에 모든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창원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줌과 동시에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알찬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 나아가 창원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박차

내달 17일~25일 본청과 구청, 직속기관·사업소 대상

2014년도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혔다.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다.

7월 25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시의회는 곧바로 지난 5일 유원석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일정을 최종 조율한 후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청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9월16일부터 10월 10일로 예정된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다. 창원시 본청과 구청,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예산집행상황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각종 민원처리 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한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철)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과 의회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감사관, 기획홍보실(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포함), 안전행정국, 창원소방본부(창원·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대해 실시한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경제재정국,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등에 대해 실시한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전수명)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사업소,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등이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등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 집행 여부를 감사한다.

대상기관 자료요구 건수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11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247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231건,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283건, 도시건설위원회 212건 등 총 984건이다.

중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2명, 기획행정위원회 59명,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58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53명, 도시건설위원회 43명 등 모두 21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의 주요 업무파악을 시작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건설위, 마산합포구 진동면 등 6곳 집중호우 피해지역 점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41회 임시회가 열리던 8월 2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피해지역인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과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 양덕천에 이어 생태하천 복원 공사 중인 삼호천 등 6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또 진해구 가주마을 침수지역을 둘러본 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피해 현장을 구석구석 점검하며 “향후 침수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피해 복구 관계자들에게도 조속한 조치와 향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8월 28일 수해복구 지역을 방문했다.



‘좋은 조레 연구회’가 지난달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사진 왼쪽 앞에서 두번째 부터
이민희, 김이근, 정영주, 노판식(대표의원),
이해련, 강영희, 노종래 의원

시민 위한 ‘좋은조레 연구회’ 출범 대표의원에 노판식... “조레 제 · 개정 앞장”

시의회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좋은조레 연구회’를 발족했다.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한 ‘좋은조레 연구회’는 8월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노판식 의원(회원1·2동, 석전1·2동, 회성·합성1동)을 대표의원으로 추대한 후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 의원들은 이날 첫 모임을 시작으로 약 2개월 마다 정례 모임을 갖고 창원 시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는 1차로 그동안 제정됐던 조레 중 우수조레를 선정해 연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창원시 조레 가운데 적기에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아 현행 법령과 상충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레를 파악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나씩 정비할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창원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련 조레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타 자치단체 의회와 정보교류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조레, 기타 시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조레의 제 ·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판식 대표의원은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에는 노창섭 의원(상남·사과동)을 회장으로 한 ‘로컬푸드(지역 음식) 연구회’가 첫 출범 후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유원석 의장

전반기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창원서 개최

제172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지난 1일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전반기 경남시·군의회 의장이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정례회로 경남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축사와 함께, 회의 안건으로 제7대 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과 부회장 선출이 상정됐다.

회장, 부회장 모두 추대방식으로 선출토록 논의돼, 신임회장에

창원시의회 유원석 의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눠 동부지역은 양산시의회 한옥문의장이 서부지역은 거창군의회 이성복의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제7대에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 이기에 특별한 안건은 다루지 않았지만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유원석 신임회장은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경남의 주축이 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시·군의장님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을 밝혔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입법예고

이상인 의원 발의

시의회가 협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이상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생활에 효용을 주는 유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기본 이념에 근거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시 정책에 타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를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구축 △설립·운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은 ‘창원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이상인 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창원시가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협동조합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모락모락’



‘로컬푸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첫 모임을 가졌다.
사진 왼쪽 앞에서 두번째부터 이천수, 이치우, 김동수, 노창섭(회장), 주철우, 배옥숙, 한은정 의원

‘로컬푸드 연구회’ 첫 등록...

시의회가 연구모임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연구단체’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 접수는 제1대 의회가 종료돼 기존 연구단체가 없어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2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심분야에 대해 자발적 연구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단체는 7명 이상 의원이 가입된 ‘등록신청서’와 연구과제,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연구단체는 시의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이 확정된다. 8월 25일 기준, 창원에서 생산한 농식품들의 유통단계를 줄여 농민과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노창섭 의원(상남·사파동)을 회장으로 한 ‘로컬푸드(지역 음식) 연구회’가 등록, 심의 중에 있다.

‘로컬푸드 연구회’는 앞으로 국내 선진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한 후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체계 및 직거래 매장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다. 이어 연구회는 학교(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로컬푸드 정책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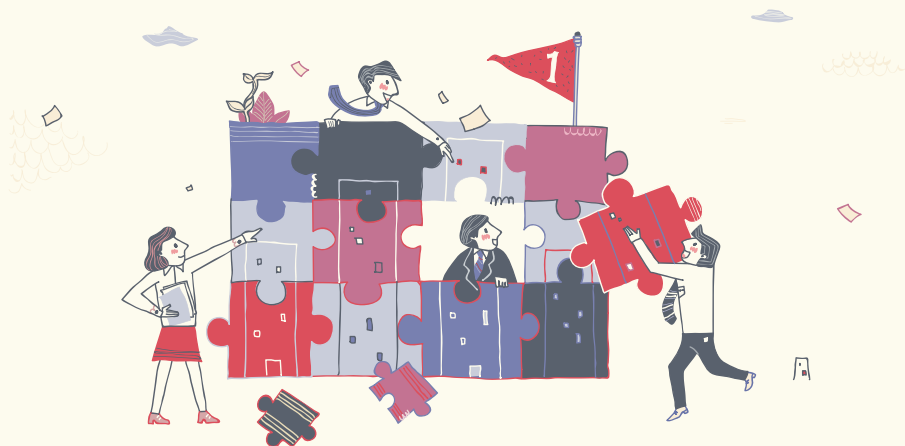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 우선 9월2일 첫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우수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알려진 전북 전주와 완주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본 후 관계자를 만나 성공 사례담을 듣는다.

시의회 연구단체는 이번에 등록한 ‘로컬푸드 연구회’를 시작으로 향후 3~4개 연구단체가 추가로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 신청 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연구단체는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자료 수집비,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단체별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으로, 향후 시정발전의 정책 제시는 물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제1대 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좋은조례 연구회’, ‘복지시설 개선 연구회’, ‘도시계획 연구회’, ‘복지시책 개선 연구회’, ‘농촌정책(로컬푸드) 연구회’ 등 5개 연구모임이 활동했으며,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시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영 주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회

2014. 7. 10 창원시보 제97호 게재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6.4지방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간다. 그리고 7월1일부터 통합 창원시의회 2기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다. 돌이켜보면 엄마의 마음처럼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주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주민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심부름꾼 역할을 잘해야 좋은 시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참 좋은 시의원이 되기 위한 4년, 활동을 보다 계획적으로 하려면 마음을 더 굳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정치를 하였을까?’ 의문이 들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하나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 한국사’ 강의를 들어 보았다.

강의 가운데서도 과히 ‘소통의 제왕’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세종대왕 리더십과 그 당시 세종대왕이 꿰뚫은 시대정신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

훈민정음의 창제동기에서 보듯이 나랏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하시고, 당시 양반관료들의 반대와 대국이었던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나라의 주체라고 하신 ‘자주정신’,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민본정신’,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백성들과 소통의 정치를 펼쳐나갔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세종시대에 수많은 인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그 능력을 극대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가령 경험 많은 농부를 직접 시험하게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책을 편찬하는가하면, 1430년 세종시대에 국가에서 확정할 세법에 대한 찬반을 당시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진행했다. 또 최하위 계층인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100일씩 주었던 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는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밖에 별 다른 도리가 없다.

이제 2기 통합 창원시와 시의회가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 시민 모든분들께 모두들 잘하겠다고 했고, 잘들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전히 소통의 부재로 인해 중앙 정치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방정치만이라도 당을 떠나서 오직 시민만을 위한 소통의 리더십이 진가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나 역시 엄마의 마음같은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외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더 배우고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김 이 근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 위원회

‘대화합’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2014. 7. 25 창원시보 제98호 게재

제2대 창원시의회가 지난 1일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안고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우리 시의회는 이제 110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활정치 실현, 시의회의 위상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의회가 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대 의회의 경험을 살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긴 안목을 가지고 의원 한명 한명의 애기에 귀 기울여 의회 내 소통과 화합이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이다.

시민들도 이제는 의회가 앞장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길 갈망하고 있다. 사실 지난 1대 의회는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통큰 화합’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의 선거구는 마산합포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이다. 구한말 당시 이 부근은 진해현 관할의 서면, 북면, 동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마산을 해군극동함대 기지로 사용할 즈음 일본이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의 진동면 위치에 있었던 군항지를 진해 웅천

지역으로 옮기면서 서면, 북면, 동면 가운데 동면을 진동(鎭東)이라 이름 지은 데서 유래됐다.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에는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구산면과 진북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창원부로 편입되고, 1980년 창원부가 창원시로 승격 되면서 의창군(창원군)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995년 1월1일자로 마산시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농 통합 이후 2001년 1월1일 구 폐지 직전까지는 합포구에 속해 있다가 지난 2010년 7월 1일 옛 창원시, 진해시와 통합한 새로운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마산합포구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었다.

이처럼 구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본 의원의 지역주민들은 이제 통합 창원시라는 큰 틀에서 한 뿌리로 성장한 만큼 모두가 잘사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아울러 통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가 가장 시급한 만큼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바뀌고 화합하며 소통해야 한다.

이제는 반드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화합과 소통을 통해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통합, 대화합의 시대’를 활짝 여는데 한 치의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래된 것에서 찾는 새로운 가치



이 해련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2014. 8. 10 창원시보 제99호 게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옛것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에만 의존하던 도시재생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와 닿는 건 삶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걸까?

옛 동네와 오래된 마을의 역사는 사라지고, 거주민들은 떠나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없이 보고 있다. 사람들이 떠나버린 텅 빈 도심과 쇠퇴해진 산업화의 흔적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도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문화 예술도시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20세기 말부터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도시들이 많다. 오래되고 낡은 폐공장 등은 미술관으로 새롭게 변신해 세상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발길이 끊이지 않는 런던, 파리, 빌바오, 나오시마 등은 멈춰버린 기차역이 여행객의 쉼터인 멋진 호텔로 탈바꿈 했다.

맨해튼의 노후 된 하이웨이는 도심 속의 녹화 공간인 공중 공원으로, 예술가의 놀이터로 변신한 런던의 양조장, 환경공원으로 재탄생된 독일의 제철소, 10m 높이의 폐 철길을 공중 산책로와 조망대로 변신시킨 프랑스는 대표적인 신재생도시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의 연구와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문화

예술, 지역축제, 근대문화유산, 랜드마크, 미술관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창원시에서도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진해구의 서부지역 또한 군항 도시로서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재생 사업이 시작 되었기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원칙과 철학이 기본 바탕이 되어, 도시의 특성과 역사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도시의 규모와 거점성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고 그곳의 고유 자원을 상품화해서 홍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지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업의 전략과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로 노력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성공 사례에만 의존하면 성공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거창하든, 소박하든,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는 과정이 목적을 이룬 다음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김 우 돌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 위원회

귀농·귀촌하고 싶은 농촌 만들자

2014. 8. 25 창원시보 제100호 게재



제2대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7월1일 출범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민생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우리 창원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농 통합지역이다. 창원시가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농촌의 인구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기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다. 우리는 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 생각한다.

농촌지역에는 첫째, 자녀의 교육 환경이 너무나 취약하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둘째, 농가 소득증대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기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최근 농업기술 센터에서 농협과 협조해 방제용 무인 헬기를 도입하여 방제하는 현장을 돌아 볼 기회가 있었다. 농촌 기계화 사업의 절박함이 정말 현실감 있는 시책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사업이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초기 걸음마 수준이다. 고가로 구입해 몇 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현실은 농가부채의 악순환을 몰고 오고 있다.

넷째, 여가활동에 필요한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등의 시설확충이다.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창원의 농촌지역도 자녀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작지만 내실 있는 교육공간이 충분하길 간절히 바란다. 또 농촌지역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레저 공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의료시설 지원 등 ‘더 큰 창원’을 지양하는 창원의 폭넓은 정책을 기대한다.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맞는 건전한 기반 시설을 갖추었을 때 우리의 농촌은 떠나는 농촌이 아닌,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하리라 믿는다.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2014. 9. 3 창원시보 제101호 게재

지난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의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시행되면서, 각 지자체 역시 경쟁적으로 추진·시행해오고 있다.

창원시는 정부 정책보다 앞선 지난 2007년부터 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전거도시로 각광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원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전거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2014년 7월 현재 창원시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97.6km를 포함해 총 603km로 서울(446km), 부산(288km), 대구(535km), 인천(364km), 광주(418km), 대전(520km), 울산(175km) 등 전국 광역시에 비해 전국 최장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전거도로 침범, 보관시설 부족, 일부 지역 자전거도로 단절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둘째, 창원시 자전거 정책의 대표 아이콘인 시민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누비자는 회원 모두,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창원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전환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누비자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누비자 도입 이후 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51.1%가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73.8%나 되며 경제적 편익 또한 연간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누비자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고장 발생이 높고, 특정 시간대 일부 터미널 내 만차 또는 부족, 옛 마산·진해지역의 터미널 수 부족,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때 누비자는 창원시민의 녹색교통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셋째, 자전거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자전거가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좋은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인프라의 개선, 누비자의 효율적 운영, 자전거문화 정착 등이 잘 조화되어 추진될 때 수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진정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조 영 명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 위원회





창원시의회
council.changwon.go.kr